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 (안건①) 「제7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 4대 추진과제 선정 : ①금융산업 혁신 제고, ②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③자본시장 활성화, ④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 ▶ (안건②)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법정 심의사항 등 평가방안 마련
 - 연구수행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내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장, 이하 ‘금추위’)를 8월 19일(수) 개최하여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및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2개 안건에 대한 보고·심의를 진행하였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금융위 소속으로 설치되어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해제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당연직인 중앙·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위촉직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간위원 전원 임기가 지난 7월 만료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대학,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신임 민간위원 10인을 2년('26.8.19.~'28.8.18.) 임기로 위촉하였다.

<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6.8.19.(수)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총 23인)
 -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중앙·지방정부: 6인) [차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금융중심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유관기관장: 6인)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민간위원: 10인) 대학,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 [[참고](#)]
- (심의안건) 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②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II. 제7차 기본계획(2026~2028)

2026~2028년 3년간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내실있는 금융중심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금융산업 혁신 제고) 인구구조 변화,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및 핀테크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
- ②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비금융 융합,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이슈를 선도하고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지원
- ③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인프라를 해외투자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 및 자산운용산업 고도화
- ④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III.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공모(2~4월)를 거쳐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연구수행기관은 회의에 앞서 법정 심의사항*(시행령 제6조)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인으로 평가단(총괄·금융·개발 분과)을 구성하였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이 평가단과 마련한 평가요소·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보고받고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①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②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③경영·교육·생활환경, ④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⑤개발계획 현실성, ⑥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⑦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⑧지역 주민기업 등 의견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은 평가방안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3~4분기 중 진행할 예정으로,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 [별첨] 제7차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 요약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임두봉	(02-2100-2893)
			사무관	예병우	(02-2100-2881)

참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명단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시행령 제10조

구 분	성 명	현 직위
정부 (7인) * 令 §10②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 (공석)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전재수	부산광역시 시장
유관기관 (6인) * 令 §10③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황성엽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민간위원 (10인) * 令 §10①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형곤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 파트너 *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위원
	송창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민식	한화생명보험 고문(前 투자부문장)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한국금융학회 회장 *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행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이사